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3

육조의 의발 ②

언어와 문자는 옛사람이 남긴 찌꺼기일 뿐이다. 황벽(黃檗)은 팔만의 법문이 우는 아이 달래는 종이돈이라고 했다. 임제(臨濟)는 한술 더 떠 모든 언설이 "부정(不淨)을 불식(拂拭)하는", 즉 뒷간에서 똥을 닦는 휴지라고 질타했다. 선의 궁극은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지하는데 있다. 수레를 깎는 노인처럼 비결은 머리가 아닌 손의 감각에 있다. 격류를 타고 헤엄치는 어부처럼 구경(究境)은 몸의 전 기능을 통해 실재의 흐름에 참여하는데 있다. 선은 그 목표를 위해 언어를 과감히 버렸다(教外別傳, 不立文字).

그렇다고 선이 언어를 부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까뀌(손도끼)를 잡는 법이나, 헤엄치는 자세를 가르치고 익히는 데는 언어를 통한 설명이 얼마나 유용한가. 선은 언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다만 이용할 뿐이다. 선이 언어에 대한 부정에 기우는 듯이 보이는 것은 태동기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탓이라고 생각한다. 선이라는 이름 자체도 대승의 훈고적 교학에 대한 적극적 대결의식을 함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 이주석

선은 특정한 교학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전승되었다. 그 정당화를 위해 인도불교의 역사까지 새로 었다.

그 이후 2조 혜가(惠可)에서 3조 승찬(僧璨), 그리고 4조 도신(道信)에 이르는 백여년간이 선의 준비기에 해당한다. 이때까지 선의 운동은 이단 혹은 기벽의 별종집단으로 인지되었을 것이다. 7세기 후반에 편찬된 불교사인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에조차 불후의 걸작 〈신심명 · 信心銘〉을 지은 3조 승찬의 전기가 실려 있지 않을 정도이다.

7세기 중엽 5조 홍인(弘忍)은 지금의 양자강 중류 이북, 호북성 동부의 기주(蘄州) 황매산(黃梅山)에서 자리를 잡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때는 태종의 후비에서 정권을 장악한 측천무후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다. 신비주의에 경도한 무후의 파격적인 불교융호와 함께 홍인의 제자들이 중앙으로 진출함으로써 선은 사회적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법여(法如 638-689)가 낙양에 가까운 숭산 소림사 근처에서 독자적인 포교를 연 이후, 혜안(惠安)과 신수가 장안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모두 홍인의 탁월한 제자들이다.

초기불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전법보기 · 傳法寶記〉나 〈능가사자기 · 楞伽師資記〉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신수는 거의 신비한 위광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신수를 혜능의 법력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의 수행자로 그리고 있는 〈육조단경 · 六祖壇經〉의 논조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는 가히 충격적이다.

측천무후는 고령의 신수를 위해 특별히 종려나무로 만든 가마를 마련해 주고, 그 아래에서 공손히 동산(東山:홍인의 선풍)의 법문을 청강했다 한다. 이런 기록도 있다. 무후는 혜안과 신수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 수많은 미녀들로 하여금 시중들게 했다. 둘은 흔들리지 않은 고요한 자세로 시중을 받았다. 무후는 그 태연자약함에 "물 속에 앉은 성인을 보는 구나" 하고 감탄했다 한다.

신수의 선은 무후의 후원에 힘입어 수도의 귀족들로부터도 지지와 귀의를 얻어 번성해 나갔다. 당대는 이들 신수의 계열을 홍인 동산의 정통 계승자로 인지하는데 이의가 없었다. 왕유나 두보같은 문인들도 법여를 6조로, 신수를 7조로 보는 일반적 시각에 동의하고 있었다. 두보는 만년에 홍인이 법을 펴던 기주 근처에서 쓴 한 시에서 "나는 오로지 쌍봉사에 몸을 의탁하여, 7조 선문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고 읊은 적이 있다. 이 7조는 신수를 가리킬 것이다. 북종의 득세는 화엄과 천태, 반야 등의 교학과 더불어 당당한 문호로서 자신을 정위시키려 했고, 이 노력이 다양한 초기 선종사서를 성립시켰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염화미소로 이어진 선의 등불

'不立文字' 라지만 선은 언어 · 문자를 이용

먼길을 여행하다보면 갖가지 풍경을 보게 되듯 수행이라는 명제를 두고 불교계에서 일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자기의 방법이 으뜸이고 정통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자칭 도인입네 깨달았네 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어떤 이들 가운데는 단전호흡으로 도가 열려 신통을 구사한다는 사람도 있고 몸은 그대로 두고 혼이 빠져나가 우주를 다 본다는 사람도 있으며 예수, 공자, 석가와 대화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왕래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밖에도 전생을 본다는 사람, 귀신들과 통해서 친도를 잘

法數로 배우는 불교

〈43〉

◇청원스님 作 '만다라'

십인(十忍) ㊦

보살이 통달한 10가지 수행체험

正道와 邪道 가르는 가늠자 역할

시킨다는 사람, 부처님의 기로써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사람 등 부처님 법속에서 저마다 행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의 올바른 교리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삿되고 망녕된 것들이라 신기할 것이 없고 존중할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능엄경〉 말씀대로 전부가 무명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오온(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가지 요인 즉 색 · 수 · 상 · 행 · 식)의 또다른 짓거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신통이 되었건 산을 옮기고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능력이 되었건 법의 본질을 바르게 보지 못했으며 온통 도깨비, 외도, 마도의 경계지 부처님의 경계는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수행하는 보살은 어리석은 무명번뇌를 끊어 온갖 법의 본질이 본래부터 고요하고 청정한 줄을 알아야 바른 경지라고 하였다. 그것은 열가지 안주심에 의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는데 이를 십인(十忍)이라고 한다.

보살로써 통달해야 될 이 열가지 수행체험은 정도와 사도의 기준을 가르는 매우 긴요한 가르침으로 주의해서 믿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열가지 인(忍) 할때의 인은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수행의 단계나 지위를 가리킬때 쓰는 말이다. 보살이 수행을 바로 하여 마음이 열리면 첫째 음성인(音聲忍)이 성취된다. 음성인이라는 것은 여러 부처님의 설법을 한꺼번에 일시에 듣는 것인데 이는 부처님의 음성을 허공이나 밖에서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에서 소리도 아니고 말도 아닌 설법을 전체의 부처가 하나가 되어 해주는 것을 역시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이다. 이때의 내용도 무슨 부처가 제 마음속에 영적인 요소나 신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예언을 하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아닌 무상 · 무아 · 고 · 공 · 열반 · 윤회 · 업 · 연기 등과 같은 법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순인(順忍)이다. 지혜의 안목으로 모든 법이 관찰되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하나된 상태를 경험하게되는 경지를 말한다.

업장과 죄장에 가리워진 중생의 마음은 인간과 세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른채 생존의 욕망에 따라 그날 그날을 보내고 있다. 보살은 이러한 왜곡되고 전도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진실을 보고 그에 따른 일관된 삶을 살아간다. 세번째는 무생인(無生忍)이다. 일고 꺼지고 흐르는 생멸의 마음을 홀연히 벗어난 불생불멸의 마음을 증득한 경지이다. 법을 깨치지 못한 범부중생의 안목에서 보면 틀림없이 일체 생명과 현상계는 일고 꺼지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중생 자신의 생멸하는 마음에서 보니까 그러할뿐 참된 불생불멸의 마음자리를 얻고보면 일체사 모든 것 역시 변함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들뜸이 없다. 형상과 문자와 개념이 끊어진 마음을 보면 이러한 말이 실감이 나는 것이다. 네번째는 여환인(如幻忍)이다. 여환인이란 눈에 보이는 일체의 현상계가 다 허깨비 같아서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지를 말한다. 어리석은 범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앞에 전개된 모든 것들이 실재한다는 고정된 가치관을 기지고 있다.

세상 어느 것도 수많은 인연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파생된 법은 그 자체가 이미 실답지 못하고 허망하다. 자기의 몸과 마음은 물론 남편 처자 권속도 법의 성품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인연성이므로 허깨비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을 모르는 범부가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에 집착하여 미혹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수행자는 일체가 환임을 알아 자유자재한 해탈법을 성취하게 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⑭①

불교와 수학

36

자유

김 용 운

그림 · 최주현

불성 · 수학의 본질은 '무한한 자유'

기존틀 버려야 새로운 세계 열려

칸토르는 1845년 덴마크의 부유한 유태계 상인의 아들로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후에 할레(Halle)대학 교수에 취임, 만년에는 그곳 정신병원에서 죽었다. 무한(無限)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주위의 격심한 핍박을 받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 … 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드디어 무한론의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오랜 나의 연구생활에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온 전통적인 수학을 거부하는 일이었으나 그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흔히 '어느 철학자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풍조를 반영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 고고함을 내세우는 철학도 결국은 절대의 진리일 수 없고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천재의 창조력은 단순히 그 시대의 풍조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상의 기반을 제시하고 세계는 이들 천재가 만든 틀 속에서 인류의 문화를 다듬는다.

1883년 칸토르는 무한을 주제로 한 〈집합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고 외쳤다. 칸토르 이전에는 신처럼 여겨지던 대사상가들도 있었다. 특히 칸트는 '수학적인 진리는 선험적이다'라고 주장했고 모든 수학자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또한 종래의 고정화된 수학관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라는 유클리트를 믿고 있었다. 칸토르는 고전적인 수학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곧 '수학의 본성은 자유'라는 외침이다.

칸토르가 발견한 것은 무한의 수학이다. 희랍 이래의 전통은 유한만을 다뤄왔고 무한을 다루는 일은 금기 사항이다. 아무리 선배, 스승의 업적이 위대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수학자는 그것에서 새로운 경지로 스스로 발전해 나아갈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수학계의 대가들은 일제히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다. 특히 크리네거는 "신은 정수만을 만들었다. 그 이외의 수는 인간의 장난의 소산이다"라고 말하며 무한론은 한낱 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수는 유한 수학이기에 무한수는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임제록〉에는 임제와 좌주(座主)(교종계 사원의 주지) 간의 대화가 실려있다.

좌주=성각(聲覺 · 부처의 말씀으로 수행하는 것), 연각(緣覺 · 외부의 자극을 통해 대오를 얻는 것), 보살의 삼승(三乘)과 모든 경전에 부처의 가르침이 있다.

임제=삼승이나 경전에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좌주=그렇다면 석가모니께서 사람을 속인 것인가?

임제는 이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부처는 어디에 계신가?"라고 되묻는다. 이때 좌주의 말문이 막힌다. 좌주의 입장은 경전이나 기존의 법에서만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입장이다.

임제는 기존의 틀은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석가모니가 금구직설(金口直說)한 것도 전부가 아님을 '불성의 대지는 괭이나 호미가 갈지 않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설명한다.

이 대화 내용은 칸토르가 말하는 '수학의 본질은 자유성에 있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아무리 부처의 말씀일지라도 저마다의 대오의 길을 스스로 열어 가야 하는데 그것은 곧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곧 자유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불성의 본질은 자유'라는 뜻이다. 칸토르와 임제는 인간의 가능성(불성)이 무한임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칸토르는 당시의 수학 대가들의 공격에 시달려 정신병으로 죽었다. 그러나 수학은 임제의 주장과도 같이 그 자유성을 존중함으로써 계속 발전해 간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축 개관

법륜사 수향회관 입주자 모집

삼보귀의 하소서!
연로하신 노인들의 아름다운 회향을 법륜사 수향회관과 함께 하십시오.

■ 완공된 법륜사 수향회관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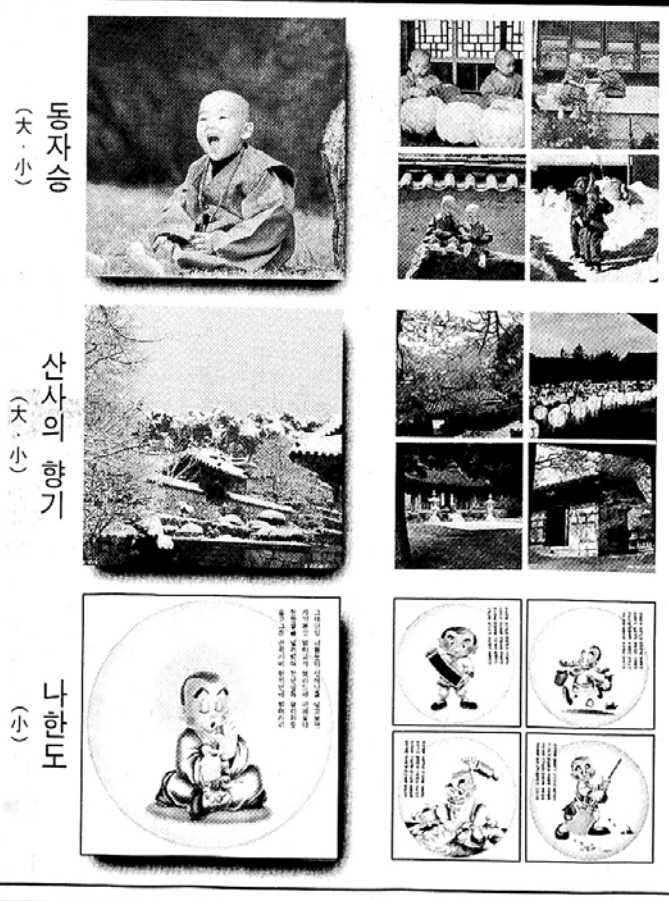
① 아담한 한옥과 편리한 현대식이 어울린 최고의 시설과,
② 자체 농사로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③ 욕탕 의료, 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어
④ 가족과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지치고 얽히고 설킨 한과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기도와 좌선 예불을 올리며
⑥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 비구니 스님께서 정성껏 모시며
⑦ 특히 치매노인을 10명까지 입주시킵니다.

평생 수향 분담금 안내		
남녀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제한 없습니다.
방1실 ~ 1명	평생 수향하실 분 - 3천만원	◆특혜 : 치매노인 10명 선착순 마감 (4천만원-평생)
방1실 ~ 2명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5백만원	
방1실 ~ 3명이상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만원	
고 시 생	00명	(단, 3개월,6개월 이상자에 한함 - 일부 보증금, 월30만원)
문 의 처	본찰 법륜사 0543-955-1379	
	부산 법륜사 051-331-3084	

※ 빠른 시일내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접수마감 : 12월말까지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선주리 (해인사 길목, 경남 · 경북 경계선)

· 주지: 운 봉 · 총무스님: 자 혜 · 신도회장: 이 경 자 합장

불기 2542년 달력 5일이내 납품가능 합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 · 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 · 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무인년 조견표가 들어 있습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